주민 똘똘뭉쳐 마을 땅 되찾았다

나주시 신촌리, 50년 전 郡 귀속 143평 … 변호사 도움 없이 승소

나주의 한 농촌마을이 70대 이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자치단체에 빼앗긴 '마을 땅'을 소송 끝에 되찾았다.

광주지법 민사22단독 김민정 판사는 28일 나주시 남평읍 신촌마을(신촌리) 주민들이 나주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에 따라 신촌마을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남평리 광촌리의 땅 473㎡(143평·시가 3천만원 상당)에 대한 소유권이 나주시에서 다시 '신촌리'로 넘어가게 됐다.

애초 이 땅은 일제 강점기인 1915년 '신촌리' 명의로 확정됐지만, 지난해 2월 나주시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시가 소유권을 갖게 됐다.

당시 나주시는 1961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동·리의 재산은 군의 소유로 귀속된다'는 조항과, 주민들이 장기간 해당 토지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소유권을 이전했다.

하지만 신촌마을 이상근(70) 이장과 68세대 주민 210여명은 "100년 가량을 소유해온 '마을 땅'을 지자체가 억지로 빼앗아갔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씨와 주민들은 나주시가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안 직후, 주민 총회를 소집하고 시에 두차례에 걸쳐 땅을 돌려달라고 진정했으나 시는 이를 외면했다.

이씨와 주민들은 빠듯한 시골 살림살이에 변호인도 없이 8개월 가량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은 법률 상식을 토대로 소송을 벌였다.

마을사람들은 또 나주시가 "주민들이 장기간 토지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맞서 지난 1994년 발족한 '부락총회'를 지난해 12월 다시 열어 주민들의 합의 아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부락총회'를 주민 공동체로서 비법인 사단(社團)의 결정 조직으로 인정해 총회에서 의결된 토지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인정했다. 앞서 신촌리는 1914년 4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근 마을과 함께 남평면 광촌리에 편입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문제의 땅은 행정구역인 '신촌리'가 아니라 주민 공동체로서 비법인 사단인 '신촌리'(자연부락)의 소유"라며 "행정구역인 '리'가 자치단체인 읍·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됐다고 해 주민 재산이 군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빛고을' 상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

광주시, 서울 거주자 상대 상표등록무효소송 승소

광주의 상징인 '빛고을'이라는 명칭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광주시는 28일 "지난해 윤모(34·서울)씨가 '빛고을'을 서비스표로 등록해 상표권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주장함에 따라 특허심판원에 '빛고을 서비스표 등록 무효심판'을 제기한 결과 최근 승소 심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심결문을 통해 "'빛고을' 용어는 광주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돼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누구나 자유스럽게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씨가 등록한 '빛고을 서비스표 등록'은 무효라고 심결했다.

윤씨는 지난해 6월 '빛고을' 상표를 등록하고 음식점 등에 사용료를 요구했으며, 광주시는 시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지난해 말 특허심판원에 우선 심판을 청구해 예상보다 빨리 승소 심결을 이끌어 냈다.

광주시 관계자는 "빛고을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 광주의 상징인 '빛고을'을 지켰다는 점에서 이번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의미가 있다"며 "특히 전국 각 지자체, 지명 등을 이용해 상업적,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현상에 대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심결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편 윤씨가 1심에 불복해 소를 제기할 경우 특허법원에서 2심이 진행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교육감 선거 자전거 홍보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시민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교육감 선거 자전거 홍보' 단원들이 28일 오후 광주시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 앞에서 오는 6월 2일 첫 직선제로 실시되는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호남선 KTX 늘린다

'용산~목포' 2회 더 신설 … 하루 4회 'KTX-산천' 운행

용산~목포간 KTX 운행이 늘어나고, 호남선에 우리나라의 자체기술로 개발된 'KTX-산천'이 투입된다.

코레일은 28일 "내달 1일부터 호남선, 경부선 등의 KTX와 수도권 광역전철의 운행시각 및 노선을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호남선의 경우는 열차별 승객수요를 고려해 '용산-목포' KTX가 2회 더 신설됐으며 '용산~목포', '용산~광주' 구간은 하루 4회씩 'KTX-산천'이 운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말 1일 기준으로 호남선 KTX의 운행 횟수는 모두 38회로 늘었다. 코레일은 또 경부선 '서울~동대구(1일 8회)' KTX는 구간을 '서울~부산(1일 8회)'으로 연장하고, 한국형 새 열차인 'KTX-산천'을 '서울-부산'간 하루 4회 투입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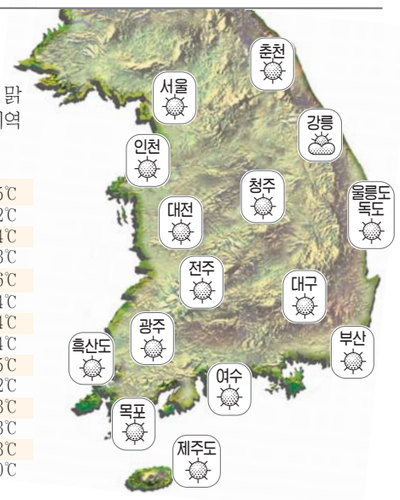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24분 해짐 18시 51분 달뜸 18시 05분 달짐 05시 25분

따스한 햇살 가득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으며 아침한때 안개낀 지역이 있겠다.

광 주	맑음	0/15℃
목 포	맑음	1/12℃
여 수	맑음	3/14℃
완 도	맑음	1/13℃
구 례	맑음	-3/16℃
해 남	맑음	-2/14℃
장 흥	맑음	-2/14℃
고 흥	맑음	-1/14℃
순 천	맑음	1/15℃
영 광	맑음	-1/12℃
진 도	맑음	-1/13℃
전 주	맑음	-1/13℃
남 원	맑음	-5/13℃
흑산도	맑음	3/10℃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먼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먼바다	북~북동	1.0~2.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보통	관심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 m
먼바다	북~북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먼바다	북~북동	1.0~1.5m

	밀물	썰물
목포	01:16 13:42	06:39 19:01
여수	08:34 20:55	02:15 14:3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0(화)	31(수)	1(목)	2(금)	3(토)	4(일)
날 씨						
최저/최고	4/16	7/14	11/14	5/14	2/16	5/16

서강정보대 등 4개 전문대 교육역량 우수대학 선정

광주 서강정보대 등 올해 전문대 교육역량 우수대학에 선정된 80개 대학에 총 1천812억원이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중 교육역량 우수 대학 선정 결과를 28일 확정·발표했다. 광주·전남대학 중 서강정보대는 35억9천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많은 지원액을 받으며 송원대 31억3천만원·동강대 30억7천700만원·목포과학대 30억300만원 등으로 4개 대학이 30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건강검진 3명 중 1명 비만

건보공단 2008년 자료 … 과학자 "비만이 당뇨 원인"

2008년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셋 가운데 한 명은 비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08년 건강검진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검진 수검자 988만명 중 체질량지수(BMI) 25.0이상인 비만인이 324만명(32.8%)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비만인 324만명 중 체질량지수가 25.0이상~30.0미만인 고도 비만인은 277만명이었다. 또 체질량 지수 30.0~40.0미만인 비만인은 45만명, 40.0이상 비만인은 2만3천500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체질량지수가 25.0이상인 비만인을 성별로 분류하면, 남성의 비만인 비율은 38.1%로서 여성 비만인 비율(25.9%)의 1.5배 수준이었다.

한편, 비만이 왜 당뇨병이나 인슐린 저항성 등의 질환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그동안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치료에도 응용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재미 한인 과학자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동안 제2형 당뇨병과 비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체내 '소포체 스트레스(ER stress)'를 조절하는 물질 'p85'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결국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은채 비만에서 당뇨병 등의 질환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미국 하버드의대에서 '박사 후 연구과정' 중인 박상원 박사가 주도한 이번 연구결과는 세계적 과학저널인 '네이처 메디슨'(Nature Medicine) 29일자에 실렸다. /연합뉴스